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意見

[青年](1921년 3월 12일 창간)

男子나 女子나 同一한 사람이라, 사람과 사람의 交際하는 것이 正當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는 習慣의 制裁가 嚴切하였으므로 그 錯誤된 思想을 들어 確論하려 한다.

(1) 兩性の 調和

男女交際를 反對하는 理由는 흔히 風紀의 紊亂이니 異性の 相求함은 生理上 原則이라 握手 交話하는 것이 戀慕의 情과 亂倫의 變을 引致하겠다 함이다. 그러나 이는 心中有妓者流의 近視皮觀이다. 紳士 淑女의 交際는 淫婦蕩子の 遊戯가 아니라 知識을 相資하며 善惡을 相戒하여 理性으로 交하고 信念으로 接하나니 도리어 男의 強과 女의 柔가 서로 感化를 及하며 和氣를 發하여 圓滿한 社會가 現出될 것이며

(2) 文化의 速進

個性의 發展은 人類의 重大한 問題다. 女子를 料理具나 裁縫針이나 母車로만 看做하던 陋習은 論할 바 無하거나와 至今까지 男子만 專橫하던 社會運動을 그 範圍를 擴大하여 共同協力하면 文化의 發展이 倍나 速할 것이니 萬一 共同協력이 必要하다 하면 그 前提로 男女交際를 肯定할 것이다.

要컨대 男女交際를 反對하는 論據는 倫理上 原則이 아니요, 性慾的 關係이다. 人類의 原始狀態를 追想하면 無知蒙昧한 男女가 交雜 共處하였으므로 淫奔이 流行하고 嫉妬가 爭起하여 風紀가 亂하고 寧日이 小한지라 哲人 聖者が 이에 鑑하여 男女七歲 어든 不同席이라 하는 嚴法을 制定하게 된 것도 그 時代 그 社會에는 適應한 方法이었다. 그러나 道德의 發展이 進步하고 文化의 範圍가 擴大된 現代에 處하여는 成人이 復起하셔도 男女交際를 正論이라 할 것이다.